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신 행 우†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일반 음주자들의 성격 특성과 음주문제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음주문제에 대한 성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TPQ(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척도 점수의 고저로 구성된 성격 유형에 따라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개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통해 성격이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성격은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과 위해 회피 차원이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음주 정도를 통제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이 음주 정도를 통해 미치는 효과와 별도로 음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음주 및 음주문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격 유형 집단들 중 우리 나라에서는 수동-공격형 집단이 음주문제 정도가 가장 심한 집단이며, 반면에 기분고양형 집단은 음주문제의 정도가 가장 낮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적당한 음주는 여러 가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도하거나 습관적인 음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술의 역기능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초래된다. 최근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노인철과 서문

희 및 김영래(1997)는 우리 나라의 음주에 따른 연간 사회적 손실 규모가 95년 기준으로 생산성 손실,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 질병 치료비 및 음주에 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포함해 GNP의 3.97%인 13조 8천3백 9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 김용석(1997)은 전국 성인 남녀 6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 행 우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136-701 /
Fax : (02)928-9203 / E-mail : hwshin77@kucn.korea.ac.kr

1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세계보건기구의 알코올장애확인검사(AUDIT) 기준으로 우리 나라 성인의 32.2%가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는 문제성 음주자로 그리고 국립서울정신병원이 개발한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에서는 응답자의 4.2%(우리 나라 전체 성인의 수를 가지고 추산하면 약 1백34만 명에 해당)가 알코올 중독자로 분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 외에 일반 음주자들 중에도 실제 알코올 의존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차 알코올 중독으로 이행해 갈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환자군 및 문제성 음주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주로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일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일반 음주자들이 심각한 음주관련 장애로 이환되기 전에, 위험성이 높은 음주자들을 미리 가려내고, 이들이 알코올 중독 상태로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와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Grant와 Ritson(1983)은 만일 적절한 충고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많은 문제성 음주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음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를 더 해치기 전에 미리 음주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기 단계에 효과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 음주자들에 있어 음주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과 음주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특히 성격 요인은 지난 60여 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아마도 성격이 음주 행동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인간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인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단일한 성격 특성을 규명해내려는 시도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Cox, 1987; Nathan, 1988). 하지만 이런 노력의 실패가 알코올 중독과 성격 변인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민감하고 특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단일한 성격 특성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성격은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에 있어 성격 요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충동성, 부정적 정서성, 場 의존성, 자극 강도의 조정, 낮은 자존감 및 통제 소재 등이 음주문제 및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Cox, 1987; Levine, 1990). 그런데 이들 성격적 위험 요인들 중 지금까지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난 특성은 '행동 통제'의 부족(behavioral undercontrol)'과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이다(Cox, 1987; Nathan, 1988; Sher & Trull, 1994; Stacy, Newcomb, & Bentler, 1991).

그런데 성격과 음주의 관계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성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연구자들의 노력은 신뢰도와 타당도 둘 다에 있어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Nathan, 1988). Nathan(1988)은 Allport, Murray, Costello, Levy 그리고 Klinger가 제안한 성격의 정의를 개관하고 이들 정의들의 공통점을 밝히면서, "성격은 내적이고(internal), 독특하고(unique), 지속적이고(enduring), 활동적이며(active), 원인으로 작용하고(causal), 통합적인(integrating)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하였다. 음주 및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많은 성격 변인들은 분명 여러 성격 이론가들이 제안했던 위와 같은 성격 정의 준거들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특히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서 성격 변인을 다룰 때는 성격이 '원인으로 작용한다(causal)'는 준거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격을 어떤 장애의 소인(predisposing factor)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장애의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성격 특성들이 주효과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음주의 1차적인 동기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과 같은 장애의 심리사회적 결과(예, 생활 스트레스나 비도덕화)와 생물학적 결과(예, 에탄올 중독이나 뇌손상)가 성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Sher & Trull, 1994). 성격과 음주문제 사이의 관련성에서 이 두 가지 관계의 형태는 한 가지는 성격이 원인으로 작용하고(causal), 다른 한 가지는 성격이 결과로 나타난다(reactive)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더구나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성격 요인들은 실제로는 성격(내재적이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독특한)이 아니라 행동(외현적이고 반응적이고 공유된)인 경우가 많았다(Nathan, 1988).

실제로 여러 연구들(Allan, 1995; Collins & Marlatt, 1983; Cox, 1987; Nathan, 1988)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우울이나 불안은 알코올 중독에 선행하는 성격 요인이 아니라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 연구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음주 및 알코올 중독과 성격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성격이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성격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서 나타난 성격 특성을 곧바로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위험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성격 요인을 밝혀보려는 연구들(박종호 · 박민철 · 박남진, 1989; 조성남 · 이대희, 1984; 피상순 · 노승호 · 오상우, 1990)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 대부분은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주로 다면적 인성 검사(MMPI)와 같은 성격 검사를 이용하여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

에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세 연구 모두에서 환자들은 MMPI의 모든 임상 척도들에서 T점수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70점 이상이 없는 것은 물론, 60점 이상인 척도도 전혀 없었다.

음주 및 알코올 중독과 성격 요인의 관련성을 보려했던 국내 연구들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연구 대상의 문제이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일반 알코올 중독자들과는 다른 특성들이 있는 특이한 표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입원한 환자들은 순수하게 음주문제 그 자체만으로 입원하기보다는 어떤 병발 정신장애를 보이거나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배재남과 조맹제(1994)가 입원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발 정신장애의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대상 환자 101명 중 약 절반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병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마다 연구 대상자들의 선정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연구 결과들을 다른 환자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음주 및 알코올 중독에 선행하는 성격적 위험 요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보이는 성격 특성은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성격적 소인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알코올 중독의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격 특성의 연구는 알코올 중독의 발병에 선행하는 성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 다른 정신장애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성격 특성이나 병발 정신장애를 밝히는 것은 개개의 환자에게 더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Griffin, Weiss, Mirin, Wilson, & Bouchard-Voelk, 1987). 그렇지만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가지고는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위

험 요인을 제대로 찾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직 알코올 중독의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격 특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 음주자들 중에는 음주의 정도나 음주로 인한 문제의 정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성격 특성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물론 종단적인 추적 연구가 되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위험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일반 음주자들에 있어 음주나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 특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성격 측정 도구는 MMPI였다. 그런데 MMPI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조군인 일반 음주군은 말할 것도 없고 알코올 중독 환자군에서도 모든 하위 척도의 T점수가 정상 범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임상 척도도 T점수가 60점이 넘는 척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피상순 등(1990)은 알코올 중독 환자의 부정(denial) 경향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은 척도 점수를 보였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검사 점수의 처리과정이다. 알코올 중독 환자의 성격적 위험 요인으로 밝혀진 단일한 성격 특성은 없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 집단은 여러 유형의 성격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이질적인 집단일 수 있다. 그런데 환자들의 검사 점수를 척도별로 평균해버리면 환자 개개인의 성격 유형에 대한 정보는 사라져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호 등(1989)과 피상순 등(1990)의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의 척도 점수 평균만을 보고하고 있어, 알코올 중독 환자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성격 유형들에 대해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조성남과 이대회(1984)의 연구에서만 개개 환자의 코드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이들 코드 유형 중 4-9/9-4유형이 전체 환자 중 27.5%로 가장 많

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입원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성격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MMPI가 그다지 민감한 도구가 아님을 시사한다. 더구나 뚜렷한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반 음주자들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MMPI와 같은 진단용 성격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반 음주자들의 성격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병리적 측면보다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격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Cloninger(1987b)는 여러 가지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가지고 성격 장애 뿐만 아니라 정상 성격의 변이(variation)를 설명하기 위해 3차원 성격 검사(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이하 TPQ로 약함)를 만들었다. 그가 가정한 세 가지 성격 차원은 새로운 경험의 추구(Novelty Seeking), 위해 회피(Harm Avoidance) 그리고 보상 의존성(Reward Dependence)인데, 이들 성격 차원들은 유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신경생물학적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에 대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강렬한 기분의 들뜸이나 흥분을 향한 유전적 경향성으로, 단조로움의 회피뿐만 아니라 잠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빈번한 탐색적 활동을 유도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차원은 뇌의 행동 활성화 체계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는데, 행동 활성화 체계는 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에 의해서 조절된다. 위해 회피는 혐오적 자극 신호들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으로, 처벌과 새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또 기대했던 보상의 생략으로 생길 좌절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도록 학습하는 경향성이다. 이 차원은 뇌의 행동 억제 체계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데, 행동 억제 체계와 가장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물질은 세로토닌이다. 그리고 보상 의존성은 보상의 신호들(특히 사회적 승인이나 원조에 대한 언어적 신호들)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이전에 보상과 연합이 되었던 행동의 소거에 저항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려 하는 유전적 경

향성이다. 이 차원은 뇌의 행동 유지 체계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며, 신경전달물질인 노어에피네프린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Cloninger(1987a)는 이들 성격 차원들의 패턴과 알코올리즘의 유형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타입 1 알코올리즘은 오랫동안 술을 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폭음을 중단할 수 없는 '통제의 상실'이 주된 특징인데, 이 유형은 수동-의존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수동-의존적인 성격은 불안이 주 특징인 성격으로 Cloninger의 세 가지 성격 차원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표현하면, 보상 의존성과 위해 회피성이 높고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타입 2 알코올리즘은 술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고 자발적 알코올추구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주된 특징인데, 반사회적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들은 수동-의존적 성격에서 보이는 특성들과 반대되는 양상을 띠는데,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높고 위해 회피성과 보상 의존성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과 알코올리즘에 걸릴 위험성의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가 있었다. Cloninger, Sigvardsson 및 Bohman(1988)은 연구 대상자들의 11세 때 행동 관찰 자료와 그들의 선생님과 면접을 한 자료를 가지고 성격 차원들을 평가하고, 27세 때 이들의 음주 양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어린 시절에 보다 높은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과 보다 낮은 위해 회피성을 보인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타입 2 알코올리즘의 증상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TPQ의 성격 차원들이 문제성 음주 및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Sher, Walitzer, Wood 및 Brent(1991)는 알코올 중독자의 대학생 자녀들이 대조 집단에 비해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더 높고 보상 의존성이 더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그들의 연구에서 행동 통제의 부족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대학생들의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를 잘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annon, Clark, Leeka

및 Keefe(1993)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이 반사회적 행동의 측정치 및 Cloninger의 타입 2 알코올리즘 측정치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성격 차원의 구성 타당도를 지지해주는 결과를 얻었다. Howard, Kivlahan 및 Walker(1997)도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이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조기 발병의 알코올 남용과 범죄성을 예언해주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Sher, Wood, Crews 및 Vandiver(1995)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이 물질 사용과 물질 남용의 측정치들을 잘 예언해주었으며, 위해 회피 차원은 음주문제와 알코올 의존 현상을 잘 예언해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Earleywine, Finn, Peterson 및 Pihl(1992)은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이 평균 주량, 음주 빈도 및 알코올 남용의 측정치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으나, 위해 회피 차원은 음주 정도 및 알코올 남용의 측정치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 음주자들의 성격 특성과 음주문제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음주자들의 성격 특성이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음주문제에 대한 성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비록 TPQ의 각 차원이 나타내는 생물유전학적 경향성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통합되어 한 개인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룬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의 성격 차원에서 유사한 반응 수준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른 성격 차원들에서의 반응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성격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성격 차원들과 음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격 차원들의 조합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한 후 성격 유형에 따라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함으로써, 여러 성격 유형들 중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특별

히 더 요구되는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

대 상

조사 대상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대학생 285명과 일반인 남녀 250명이었다. 대학생은 서울 시내에 있는 2개 대학과 지방에 있는 4개 대학에서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학생 응답자들과 대학원생들을 면접원으로 훈련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자 535명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7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특성적 분포

	대학생(n=248)	일반인(n=214)	전 체(n=462)
성별			
남	137명(55.2%)	157명(73.4%)	294명(63.6%)
여	126명(46.5%)	62명(27.7%)	168명(36.4%)
나이			
평균(SD)	20.8세(2.12)	33.6세(9.31)	26.8세(9.13)
-19세	77명(31.2%)		77명(16.7%)
20-24세	155명(62.8%)	14명(6.6%)	169명(36.7%)
25-29세	15명(6.1%)	83명(39.0%)	98명(21.3%)
30세-		116명(54.5%)	116명(25.2%)

평가도구

성격 측정

성격 측정을 위하여 단축형 TPQ(신행우·한성열,

1999)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TPQ는 세 가지 성격 차원 즉, 새로운 경험의 추구(15문항), 위해 회피(25문항) 그리고 보상 의존성(6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46 문항의 성격 검사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와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척도의 점수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 수를 합한 것이었다.

음주 정도에 대한 측정

1회 평균 주량과 음주 속도 그리고 음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는데, 모든 문항들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 주량. 1회 평균 주량을 알아보기 위해, 술을 한 번 마실 때 보통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12개의 선지(0 : 전혀 안 마심~11 : 5000cc 이상)를 주고 그 중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맥주의 양을 하나 고르게 하였다.

그리고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인 경우에는 그 양을 직접 적게 한 후, 나중에 연구자가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맥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동등한 단위가 되게 변환하였다.

음주 속도. 술을 마실 때 얼마나 빨리 마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주 천천히 마신다(1)'에서 '아주 빨리 마신다(7)'까지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음주 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7점 척도(0 :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6 : 거의 매일)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음주문제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단기적 문제들'을 음주문제로 정의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음주로 인한 학업이나 직무 수행의 장애, 폭행이나 시비, 가족과의 마찰, 대인관계의 문제 등을 음주문제로 보았는데, 이와 같은 음주문제들은 주로 알코올 남용(혹은 문제성 음주)의 진단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며, 내성이나 금단 증상 같은 알코올의존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음주문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만들기 위해, 음주문제 및 음주관련 경험을 다루었던 국내 연구들(김봉수 · 김정빈 · 이충경, 1995; 김자성 · 이철원 · 김용식, 1989; 장환일 · 전진숙, 1985; 정기일 · 연병길, 1982; 최영희 · 김인 · 이병운, 1989; 한광수 · 이정국 · 김정빈, 1990)과 외국 연구들(Dawson, Grant, & Harford, 1995; Higuchi, Parrish, Dufour, Towle, & Harford, 1994; Kitchens, 1994; Midanik & Clark, 1995; Schukit, Anthenelli, Bucholz, Hesselbrock, & Tipp, 1995)을 개관하고, 여기에서 20개의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음주문제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문항 내용이 조사 대상자에게 알맞은 표현(예 : 대학생 - 공부, 일반인 - 일)이 되도록, 대학생용과 일반인용을 따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 : 전혀 그런 적이 없다 ~ 4 : 거의 항상 그렇다)로 만들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각 문항이 가리키는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음주문제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은 6문항($\alpha = .88$), 행동상의 문제는 10문항($\alpha = .84$),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은 7문항($\alpha = .79$,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3문항은 행동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중복됨)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는 다시 말다툼(5문항)과 행동화(5문항)로 세분하고,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도 가족과의 마찰(4문항)과 대인관계 문제(3문항)로 세분하였다.

결 과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에 대한 성격의 영향

성격 특성이 음주의 정도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격 차원들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하위 영역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삼아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중다 회귀 분석에 이용한 예언 변인들과 대표적인 준거 변인들의 상관 계수 행렬표이다. 이를 살펴보면, 성별은 음주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 및 음주문제의

표 2. 중다 회귀 분석에 이용한 변인들의 상관 계수 행렬표

	성	별	연	령	새로운	위해	보상	평균	음주	음주	직업사회	행동상	가족대인
	성	별	연	령	경험추구	회피	의존성	주량	속도	빈도	기능손상	문제	관계손상
성	1.000												
별	-.308	1.000											
연	.042	-.249	1.000										
새로운 경험추구	.137	-.077	.053	1.000									
위해 회피	.207	-.049	.076	-.092	1.000								
보상 의존성	-.424	.043	.185	-.160	.009	1.000							
평균 주량	-.221	.058	.186	-.023	.034	.508	1.000						
음주 속도	-.187	.077	.199	-.116	.013	.480	.406	1.000					
음주 빈도	-.216	-.098	.391	.099	-.041	.465	.290	.436	1.000				
직업 · 사회기능 손상	-.160	.104	.267	.047	.027	.376	.317	.316	.589	1.000			
행동상 문제	-.128	.168	.263	.029	.019	.420	.368	.416	.549	.748	1.000		
가족 · 대인관계 손상													

|r| ≥ .092 이면, $p < .05$.

하위 영역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의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연령은 음주문제 영역들 중 몇 가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과 연령이 준거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이 준거 변인들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고 성격이 음주와 음주문제의 정도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1 단계에서 성별과 연령을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고, 2 단계에서 성격 차원들을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는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예언 변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준거 변인별로 중다 회귀 분석을 할 때마다 예언 변인들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준거 변인들 각각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모두에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성격 차원들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평균 주량과 음주 속도, 음주 빈도 등 음주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과 음주문제의 하위 영역들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삼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성격은 음주의 정도에 대한 지수들 각각의 변산 중 약 4~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언 변인인 성격 차원들 각각의 베타값(beta weight)을 살펴보면,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과 위해 회피 차원이 음주량과 빈도를 예언하는데 독립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성격 차원들 중 음주의 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성격 차원들과 음주 정도 간 관계의 방향은 새로운 경험의 추구가 정적인 관계 그리고 위해 회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의 하위 영역들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삼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성격은 음주문제 전체의 변산 중 약 16%를 설명해주었으며,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들 각각의 변산 중 약 8~1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언 변인인 성격 차원들 각각의 베타값(beta weight)을 살펴보면, 새로운 경험

표 3. 성격 차원들을 예언 변인으로 한 음주관련 변인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1

	1 단계		2 단계				<i>R</i> ²	
	<i>R</i> ²	새로운 경험추구(NS)		위해 회피(HA)		보상 의존성(RD)		
		Beta	ΔR^2	Beta	ΔR^2	Beta		ΔR^2
음주 정도								
평균 주량	.198 ***	.196 ***	.035	-.114 **	.013		.048	
음주 속도	.050 ***	.194 ***	.035				.035	
음주 빈도	.033 **	.224 ***	.045	-.097 *	.009		.054	
음주문제 전체								
1. 직업·사회적 기능 손상	.076 ***	.381 ***	.138	.129 **	.017		.155	
2. 행동상의 문제	.027 **	.298 ***	.083	.109 *	.012		.083	
① 말다툼	.016 *	.304 **	.086				.086	
② 행동화	.028 **	.213 ***	.043				.043	
3. 가족·대인관계 손상	.033 **	.315 ***	.092				.092	
① 가족과 마찰	.045 ***	.251 ***	.059				.059	
② 대인관계 문제	.011	.321 ***	.096				.096	

*** $p < .001$, ** $p < .01$, * $p < .05$.

※ 1 단계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ENTER 방식으로, 2 단계에서는 새로운 경험 추구(NS), 위해 회피(HA), 보상 의존성(RD)을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했음.

의 추구 차원이 음주문제들과 정적 관계가 있는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며 또한 위해 회피 차원은 정적 관계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유의한 설명량(약 1~2%)을 더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결과에서, 성격은 음주문제 뿐만 아니라 음주의 정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적으로 성격이 음주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음주 정도와는 독립적으로 성격이 직접적으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평균 주량이 많고 술을 꼭 자주 마시지 않더라도, 특정한 성격 특성의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술을 마시면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1 단계에서 성별과 연령을, 2 단계에서는 평균 주량, 음주 속도 및 음주 빈도를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고, 그리고 3 단계에서 새로운 경험의 추구, 위해 회피, 보상 의존성 차원을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성별, 연령 및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음주문제의 하위 영역들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삼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음주의 정도는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의 변산 중 약 16~24%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성격은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의 변산 중 약 4~9%를 설명해주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여전히 음주문제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위해 회피 차원은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전에는 음주문제의 영역 중 직업·사회적 기능의 손상에 대해서만 약 1%의 설명량을 더해 주었는데, 음주 정도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는 행동상의 문제와 가족·대인관계 손상을 예언하는데도 약 1%의 설명량을 더해주는 유의미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음주 정도의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험 추구 차원과 위해 회피 차원이 음주문제 전체 변산 중 약 10% 정도를 설명해줌으로써, 성격이 음주의 정도와는 별도로 음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격이 음주의 정도와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격 차원들 중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거의 모든 준거 변인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음주 정도의 효과를

표 4. 성격 차원들을 예언 변인으로 한 음주문제 영역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2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R ²	R ²	Beta	ΔR^2	새로운 경험추구(NS)		위해 회피(HA)	
					Beta	ΔR^2	Beta	ΔR^2
음주문제 전체	.030 **	.236 ***	.262 ***	.065	.178 ***	.030	.095	
1. 직업·사회적 기능 손상	.077 ***	.218 ***	.266 ***	.067	.167 ***	.026	.093	
2. 행동상의 문제	.026 **	.155 ***	.203 ***	.038	.095 *	.009	.047	
① 말다툼	.016 *	.173 ***	.200 ***	.038	.123 **	.014	.052	
② 행동화	.027 **	.093 ***	.143 **	.018			.018	
3. 가족·대인관계 손상	.034 **	.241 ***	.190 ***	.033	.092 ***	.008	.041	
① 가족과 마찰	.045 ***	.172 ***	.143 **	.019	.102 *	.010	.029	
② 대인관계 문제	.012	.219 ***	.211 ***	.039			.039	

*** $p < .001$, ** $p < .01$, * $p < .05$

※ 1 단계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ENTER 방식으로, 2 단계에서는 평균 주량, 음주 속도, 음주 빈도를 ENTER 방식으로, 3 단계에서는 새로운 경험 추구(NS), 위해 회피(HA), 보상 의존성(RD)을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했음.

제거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해 회피 차원은 음주량과 빈도에 대해서만 부적 관계를 가진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고,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음주문제의 전체 변산 중 약 3%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TPQ의 성격 차원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한 개인의 전체적인 성격은 이들 차원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성격 차원에서 유사한 점수를 보이더라도, 다른 성격 차원의 점수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들의 성격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경험 추구 차원의 점수가 유사할지라도 위해 회피 차원의 점수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표현되는 성격의 양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성격 차원들이 음주의 정도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해서, 성격 차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성격 유형에 따라 음주의 정도나 음주문제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격 유형별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의 차이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에서 음주의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난 새로운 경험 추구하고 위해 회피 차원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성격 유형을 분류하였다. 각 성격 차원 점수의 백분위(percentile rank)를 고려하여, 두 가지 성격 차원에서 각각 상하위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했을 때, 여자의 경우에는 각 집단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그 기준을 상하위 40%로 잡았다. 결국 두 가지 성격 차원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개의 집단, 즉 ① 새로운 경험 추구 차원(NS)의 점수가 높으면서 동시에 위해 회피 차원(HA)의 점수도 높은 집단(高NS-高HA) : 수동-공격형(passive-aggressive), ② 새로운 경험 추구 점수는 높으나 위해 회피 점수는 낮은 집단(高NS-低HA) : 반사회형(antisocial), ③ 새로운 경험 추구 점수는 낮지만 위해 회피 점수는 높은 집단(低NS-高HA) : 수동-의존형(passive-dependent), 그리고 ④ 새로운 경험 추구하고 위해 회피 차원의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低NS-低HA) : 기분고양형(hyperthymic)을 새롭게 구성하였다(표 5).

성격 유형에 따라 음주의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변인들에 대해 일원 변량 분석을 하고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 검증을 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낮은 집단들(수동-의존형과 기분고양형)에 비해 높은 집단들(수동-공격형과 반사회형)에서 평균 주량과 음주 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동성이 주된 특징인 반사회형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 주량을 보였다.

성격 유형에 따른 음주문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것을 때로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들이 낮은 집단들에 비해 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동-공격형 집단이 모든 음주문제 영역들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했으며, 기분고양형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음주문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동화(acting-out)에서는 성격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성격 유형별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의 차이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격 유형 집단들 중 수동-공격형 집단이 음주문제 정도가 가장 심한 위험

표 5. 성격 유형별 남녀 구성 분포

	① 수동-공격형	② 반사회형	③ 수동-의존형	④ 기분고양형	전 체
남 자	27명(22.1%)	28명(23.0%)	31명(25.4%)	36명(29.5%)	122명(50.2%)
여 자	31명(25.6%)	32명(26.4%)	26명(21.5%)	32명(26.4%)	121명(49.8%)
전 체	58명(23.9%)	60명(24.7%)	57명(23.5%)	68명(27.9%)	243명(100%)

표 6. 성격 유형별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평균(표준편차)

	① 수동-공격형 (n=58)	② 반사회형 (n=60)	③ 수동-의존형 (n=57)	④ 기분고양형 (n=68)	F	집단간 차이 검증
음주 정도						
평균 주량	4.61(2.40)	5.60(2.26)	4.14(2.34)	4.09(2.16)	5.74 **	②>③, ④
음주 속도	3.88(1.49)	4.00(1.35)	3.26(1.61)	3.01(1.47)	6.41 ***	①, ②>④
음주 빈도	3.16(1.42)	3.40(1.17)	2.82(1.23)	2.82(1.25)	2.99	n. s.
음주문제 전체	17.70(13.21)	14.17(10.84)	11.05(10.46)	6.96(5.59)	12.22 ***	①>③, ④ ②>④
1. 직업·사회적 기능 손상	5.41(5.18)	4.10(4.36)	2.32(3.78)	1.15(2.08)	13.95 ***	①>③, ④ ②>④
2. 행동상의 문제	3.61(4.15)	2.50(3.65)	1.79(4.11)	1.12(2.57)	5.27 **	①>④
① 말다툼	2.67(2.77)	1.85(2.50)	1.28(2.62)	0.88(1.97)	6.00 **	①>③, ④
② 행동화	1.23(1.85)	0.82(1.56)	0.84(2.08)	0.41(1.10)	2.51	n. s.
3. 가족·대인관계 손상	3.30(3.65)	2.60(3.28)	1.68(3.28)	1.24(1.81)	5.63 **	①>③, ④
① 가족과 마찰	1.96(2.29)	1.37(1.99)	1.14(2.26)	0.87(1.35)	3.36 *	①>④
② 대인관계 문제	1.33(1.92)	1.23(1.67)	0.54(1.35)	0.37(0.75)	6.72 ***	①>③, ④ ②>④

*** $p < .001$, ** $p < .01$, * $p < .05$.

집단이며, 반면 기분고양형 집단은 음주문제의 정도가 가장 낮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성격은 인간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줄 수 있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특정 행동에 대한 예언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반 음주자들의 음주 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음주문제와 관련된 성격적 위험 요인을 밝혀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 성격은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음주 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음주문제

전체뿐만 아니라 음주문제의 하위 영역들 모두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효과는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일반 음주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음주문제를 유발하는 성격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 연구들(Cannon et al., 1993; Earleywine et al., 1992; Howard et al., 1997; Sher et al., 1991, 1995)에서도 새로운 경험 추구 차원과 음주문제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있었다.

TPQ의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주로 충동성, 반사회성 같은 행동 통제의 부족(behavioral undercontrol)을 반영해주는 성격 특성이며,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Cox, 1987; Nathan, 1988; Sher & Trull, 1994; Stacy et al., 1991)에서도 행동 통제의 부족이 음주 문제 및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위험 요인으로 일관성 있게 지적되어 온 점을 통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결국 행동 통제의 부족이 일반 음주자들의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성격 특성임을 재차 입증해준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음주의 양이나 빈도 같은 음주 정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잦은 과음과 폭음의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또 음주 정도와는 별개로 음주 후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함으로써 여러 가지 음주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해 회피 차원은 음주 정도와는 부적 관계가 있었으나, 음주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정적 관계가 있는 유의미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음주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약간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위해 회피성도 음주문제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성격 요인인 것 같다. 그러나 위해 회피 차원과 음주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컨대 Sh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위해 회피 차원이 음주문제와 알코올 의존 현상을 잘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arleywine 등(1992)의 연구에서는 위해 회피 차원이 음주 정도 및 알코올 남용의 측정치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회피 차원은 불안 및 우울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Lepine, Pelissolo, Teodorescu, & Teherani, 1994; Starcevic, Uhlenhuth, Fallon, & Pathak, 1996), 또한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을 반영하는 성격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Sher et al., 1991).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은 행동 통제의 부족과 더불어 음주문제 및 알코올 중독의 성격적 위험 요인으로 일관성 있게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Allan, 1995; Collins & Marlatt, 1983; Cox, 1987; Nathan, 1988)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우울이나 불안은 알코올 중독에 선행하는 성격 요인이라기 보다는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행동 통제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력만큼 크지는 않지만, 위해 회피 차원이 반영하고 있는 부정적 정서성도 알코올 중독의 결과가 아닌 음주문제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Cloninger, Sigvardsson, Przybeck 및 Svrakic(1995)은 거의 1세기 전에 “알코올 중독은 정서적 기질(emotional predisposition)과 의지적 통제력(volitional control)의 개인차로 야기된 증상 복합(symptom complex)”이라고 보았던 Emil Kraepelin에게 헌정하는 논문에서, 높은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과 높은 위해 회피 성향 둘 다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위해 회피성이 알코올 남용의 시작과 중단에 있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음주의 국면들(phases)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음주의 시작과 빈번한 문제성 음주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위해 회피성은 음주의 시작과 음주 빈도를 억제하지만 일단 빈번한 음주가 시작되면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경험 추구가 흡연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위해 회피는 금연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Pomerleau, Pomerleau, Flessland 및 Basson(1992)의 관찰과 아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도 위해 회피 차원이 음주 정도와는 부적 관계가 있으면서도 음주문제와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해 회피성이 음주의 국면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Cloninger(1995)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었다.

하지만 보상 의존성 차원은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와 관련된 그 어떤 변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arleywine 등(199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일단 보상 의존성과 음주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상 의존성 척도의 문항 수가 매우 적어 척도 점수의 변인이 작아지고, 결국은 이 때문에 보상 의존성과 음주간의 관계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TPQ의 기질 차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고 가정하지만,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성은 여러 성격 차원들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Cloninger(1987a)는 성격 특성과 알코올리즘

유형의 관련성을 가정하면서, 세 가지 성격 차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성격 유형이 알코올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반 음주자들의 음주문제 정도가 성격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TPQ의 새로운 경험 추구 차원과 위해 회피 차원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격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성격 유형들 간에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의 점수가 높은 성격 유형(高NS)인 수동-공격형 집단과 반사회형 집단이 음주 정도가 더 심했으며, 이 두 성격 유형 집단 중 특히 반사회형 집단에서 평균 주량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음주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수동-공격형 집단이 그 정도가 가장 심했고, 반사회형 집단도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낮은 성격 유형(低NS)인 수동-의존형 집단과 기분고양형 집단에 비해 음주문제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 정도가 성격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공격형 집단이 음주문제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음주자들 중에서 이 성격 유형 집단이 음주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집단임을 알 수 있고, 바로 이들이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1차적 목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 성격 유형은 수동-공격적 성격(passive-aggressive personality)과 폭발적 성격(explosive personality)에서 나타나는 기분침체(hypothymia)가 주된 특징이며, 이런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걱정이 많고 우유부단하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쉽게 화가 나지만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쌓아 두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될 수 있다(Cloninger, 1987a). 이런 성격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동-공격형 성격의 소유자들은 아마도 평상시에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쌓아 두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시든 일단 술을 마시면 이와 같은 억제가 풀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한편 Cloninger(1987a)는 반사회형 성격이 타입 2 알코올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 성격 유형이 가장 높은 평균 주량을 보이면서 몇 가지 음주문제 영역에서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낮은 성격 유형 집단들(수동-의존형과 기분고양형)보다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했지만, 음주문제 정도가 수동-공격형 집단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Cloninger(1987b)는 반사회형 성격의 소유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동을 추구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조급하게 의사결정을 하며, 참을성이 아주 부족하고 공격적·경쟁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반사회형 성격의 소유자들이 보이는 높은 음주량과 빠른 음주 속도는 충동성과 인내력의 부족 같은 이들의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반사회형 집단이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낮은 성격 유형 집단들에 비해 음주문제 영역들 중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대인관계 문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성격 유형 집단도 수동-공격형 집단과 더불어 어느 정도는 음주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반사회형 성격의 소유자들이 다른 성격 유형 집단에 비해 행동상의 문제 같은 타입 2 알코올리즘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Cloninger (1987a)가 가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음주자들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 가지 비행 등을 저지름으로써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타입 2 알코올리즘은 초기(25세 이전)에 발병하는 유형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연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이들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반사회형 성격 소유자들의 부정(denial) 경향성이 음주문제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음주문제의 정도가 실제보다 더 낮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특히 이들은 타입 2 알코올리즘의 전형적인 증상인 행동상의 문제에 대해 실제보다 그 정도를 더 낮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 환자 집단에서 이런 유형의 성격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이들이 전형적인 타입 2 알코올리즘의 특징들을 보이는지는 앞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수동-의존형 집단은 기분고양형 집단과 더불어 비교적 음주문제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의존형 집단에는 불안이 주 특징인 수동-의존적 성격과 강박적 성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성격 유형의 소유자들은 매우 순종적이고, 질서와 안전 유지에 집착하는 경직성을 보이며, 비판이나 욕구좌절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라고 기술될 수 있다(Cloning, 1987b). Cloning(1987a)는 수동-의존적 성격 유형이 오랫동안 술을 끊을 수는 있지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폭음을 중단할 수 없는 특징을 보이는 타입 1 알코올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새로운 경험 추구 성향이 높은 성격 유형의 소유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문제의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입 1 알코올리즘이 주로 후기 성인기에 발병하여 급속하게 의존 상태로 진전된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들을 장기간 추적해보지 않고서 본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 Cloning(1987a)가 가정한 타입 1 알코올리즘과 성격 유형의 관련성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수동-의존형 집단이 현재로서는 음주문제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 할지라도, 타입 1 알코올리즘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TPQ를 사용하여 성격 유형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성격 유형이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도가 적은 집단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 추구성과 위해 회피성이 둘 다 낮은(低NS-低HA) 기분고양형 성격의 소유자들은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자신감이 넘치고 반대 의사를 공개적이고 주장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기술되었는데(Cloning, 1987b), 이 성격 유형 집단은 음주의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음주문제 영역에서 그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면, 기분고양형 성격의 소유자들이 다른 성격 유형에 비해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음주문제 예방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음주자의 성격 유형에 따라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도를 예측해볼 수 있고, 또 각각의 성격 유형에 있어 어떤 방식의 예방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일지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문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집단으로 나타난 수동-공격형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주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주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적절히 표출해낼 수 있도록 감정 표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음주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수동-의존형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주자들에게는 현재로서는 음주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성격 유형에서 알코올 중독이 비교적 늦게 발병해서 의존 상태로 급속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Oetting & Beauvais, 1990)에서 음주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비교적 신뢰롭다고 지적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고적 자기-보고 측정 방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반응 편파(response bias)가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시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일정 기간의 일지(日誌)를 제공하여 매일매일 음주 정도와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시간 추적(time-line follow-back: TLFB) 측정법(Sobell, Mais-

to, Sobell, Cooper, Cooper, & Sanders, 1980; Evans & Dunn, 1995에서 재인용)을 사용하거나, 자기-보고 측정치에 더해 음주에 대한 동료의 평정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해볼 만하다.

둘째, 비록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성격 특성이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은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통해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의 인과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망적 종단 연구(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음주자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에, 현재 높은 수준의 음주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실제로 이들이 장차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위험 요인들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봉수 · 김경빈 · 이충경 (1995). 한국형 청소년 약물 중독 선별검사표를 위한 예비연구(Ⅱ). *신경정신의학*, 34(6), 1862-1874.
- 김용석 (1997). 성인 10명 중 3명꼴 알코올 중독 가능성. *동아일보*, 1월 7일.
- 김자성 · 이철원 · 김용식 (1989). 한국형 주정중독 선별검사 마련을 위한 예비적 연구(Ⅰ). *신경정신의학*, 28(3), 500-507.
- 노인철 · 서문희 · 김영래 (1997).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97-05.
- 박종호 · 박민철 · 박남진 (1989). 입원한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1), 88-96.
- 배재남 · 조맹제 (1994). SCID를 이용한 주정중독의 병발 정신장애 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83-396.
- 신행우 · 한성열 (1999). TPQ(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요인 타당도 및 단축형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게재 예정.
- 장환일 · 전진숙 (1985). 한국에서 Michigan 주정의존 선별검사의 적용에 대한 예비조사. *신경정신의학*, 24(1), 46-53.
- 정기일 · 연병길 (1982). 입원된 주정의존증 환자와 그 부인의 정신증상. *신경정신의학*, 21(3), 487-492.
- 조성남 · 이대희 (1984). 알콜리증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연구-MMPI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23(4), 452-461.
- 최영희 · 김인 · 이병운 (1989). 한국형 알콜리증 선별검사를 위한 예비연구(Ⅰ). *신경정신의학*, 28(4), 588-603.
- 피상순 · 노승호 · 오상우 (1990). 입원된 알콜리증 환자의 정신병리-MMPI, SCL-90, HPRS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29(3), 649-661.
- 한광수 · 이정국 · 김경빈 (1990). 한국형 알콜리증 선별검사를 위한 예비연구(Ⅱ). *신경정신의학*, 29(1), 168-177.
- Allan, C. A. (1995). Alcohol problems and anxiety disorders- Critical review. *Alcohol & Alcoholism*, 30, 145-151.
- Cannon, D. S., Clark, L. A., Leeka, J. K., & Keefe, C. K. (1993). A reanalysis of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TPQ) and its relation to Cloninger's type 2 alcoholism. *Psychological Assessment*, 5, 62-66.
- Cloninger, C. R. (1987a). Neurogenetic adaptive mechanisms in alcoholism. *Science*, 236, 410-416.
- Cloninger, C. R. (1987b). A systematic method for

-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Sigvardsson, S., & Bohman, M. (1988). Childhood personality predicts alcohol abuse in young adult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2, 494-505.
- Cloninger, C. R., Sigvardsson, S., Przybeck, T. R., & Svraic, D. M. (1995). Personality antecedents of alcoholism in a national area probability sample.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45, 239-244.
- Collins, R. L., & Marlatt, G. A. (1983). Psychological correlates and explanations of alcohol use and abuse. In B. Tabakoff, P. Sutker, & C. Randall (Eds.), *Medical and social aspects of alcohol abuse* (pp. 273-308). New York: Plenum Press.
- Cox, W. M. (1987).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In H. T. Blane & K. 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 55-89). New York: Guilford Press.
- Dawson, D. A., Grant, B. F., & Harford, T. C. (1995). Variation in the association of alcohol consumption with five DSM-IV alcohol problem domain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 66-74.
- Earleywine, M., Finn, P. R., Peterson, J. B., & Pihl, R. O. (1992).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es of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3, 233-238.
-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m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186-193.
- Grant, M., & Ritson, B. (1983). *Alcohol: the preventive deb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 Griffin, M. L., Weiss, R., Mirin, S., Wilson, H., & Bouchard-Voelk, B. (1987). The use of the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in drug-dependent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3, 281-291.
- Higuchi, S., Parrish, K. M., Dufour, M. C., Towle, L. H., & Harford, T. C. (1994). Relationships between age and drinking patterns and drinking problems among Japanese, Japanese-Americans, and Caucasian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8, 305-310.
- Howard, M. O., Kivlahan, D., & Walker, R. D. (1997). Cloninger tridimensional theory of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Applications to substance use disord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48-66.
- Kitchens, J. M. (1994). Does this patient have an alcohol problem?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782-1787.
- Lepine, J. P., Pelissolo, A., Teodorescu, R., & Teherani, M. (199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ench version of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Encephale-Revue de Psychiatrie Clinique Biologique et Therapeutique*, 20, 747-753.
- Levine, J. D. (1990). *Alcoholism: A bio-psycho-social approach*.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Midanik, L. T., & Clark, W. B. (1995). Drinking-related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Description and trends, 1984-1990.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395-402.
- Nathan, P. E. (1988). The addictive personality is the behavior of the add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83-188.
- Oetting, E. R., & Beauvais, F. (1990). Adolescent

- drug use: Findings of national and local surve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385-394.
- Pomerleau, C. S., Pomerleau, O. F., Flessland, K. A. & Basson, S. M. (1992). Relationships of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cores and smoking variables in female and male smokers. *Journal of Substance Abuse*, 4, 143-154.
- Schukit, M. A., Anthenelli, R. M., Bucholz, K. K., Hesselbrock, V. M., & Tipp, J. (1995). The time course of development of alcohol-related problems in men and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218-225.
- Sher, K. J., & Trull, T. J. (1994). Personality and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Alcoholism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92-102.
- Sher, K. J., Walitzer, K. S., Wood, P. K., & Brent, E. E. (199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Putative risk factors, substance use and abuse,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427-448.
- Sher, K. J., Wood, M. D., Crews, T. M., & Vandiver, P. A. (1995).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and derivation of a short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7, 195-208.
- Stacy, A. W., Newcomb, M. D., & Bentler, P. M. (1991). Personality, problem drinking, and drunk driving: Mediating, moderating, and direct-effec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795-811.
- Starcevic, V., Uhlenhuth, E. H., Fallon, S., & Pathak, D. (1996). Personality dimension in panic disorders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7, 75-79.
- 원고접수일 1999. 1. 26
수정원고접수일 1999. 5. 10
게재결정일 1999. 6. 1 ■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Drinking Problems

Haeng-Woo Shin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By exploring the influences of personality on drinking problems in general population, it was hoped that the present study could identify personality factors of drinking behavior and problems. Also the clusters of personality traits, which were composed of by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TPQ) subscale scores, were compared by the degree of alcohol use and drinking problems. Helping to screen target person whom we must intervene first for alcohol prevention was first consideration of the study. Results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as follows. Personality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alcohol use and drinking problems. Both Novelty Seeking(NS) and Harm Avoidance(HA)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lcohol use and drinking problems. Even when alcohol use was controlled, these two dimensions had strong roles in explaining drinking problems. In other words, this fact suggests that personality directly affects on drinking problems without mediating factors such as alcohol use. Depending upon the clusters of personality traits, the degree of drinking and ensuing problems were different. Among the clusters of personality traits, passive-aggressive cluster was most prone to drinking problems, whereas hyperthymic cluster showed relatively less dangerous level in drinking problems. The overall findings suggested that for predicting the possible drinking problems of people, we should consider types of personality.